

도움 행동이 유발하는 정서에 대한 관찰자의 영향: 성인과 만 4-5세 아동의 자료*

김 현 정

송 현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도움 행동이 유발하는 정서에 관찰자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성인과 아동의 이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실험 1)과 만 4, 5세 아동(실험 2)에게 행위자가 도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도와줌/도와주지 않음)와 그러한 행위자를 누군가 관찰하는지 여부(없음/엄마/낯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 후, 행위자의 정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추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성인과 아동 모두 (1) 상대방을 도와주었을 때보다 도와주지 않았을 때, (2) 행위자의 행동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때보다 관찰자가 지켜보고 있을 때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자 효과는 특히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만 4, 5세의 아동들도 도움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을 관찰자가 지켜보고 있을 때, 부정적 정서가 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관찰자의 친밀도의 영향이나 도와줌 이야기 조건에서의 관찰자 효과는 성인 집단에서만 발견되었고 이는 관찰자에 대한 민감성의 발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 관찰자, 도움행동, 정서, 친사회적 행동, 도덕성발달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SSK사업(NRF-2015-S1A3-A204671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 예정임.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아동발달 연구실 연구원(진경선, 이윤하, 차민정, 이현아, 민정희, 박제완, 이윤미, 채주경), 학부생 연구조교, 연구에 협조해 주신 부모님 및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위당관, E-mail: hsong@yonsei.ac.kr

도덕적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Williamson & Clark, 1989; Arsenio & Kramer, 1992; Eisenberg, 1992).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사탕이 먹고 싶어하는 친구를 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대신 나누어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뿌듯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특정 정서가 도덕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Freud, 1915; Harris, 1989; Capara et al., 2001).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무의식으로 형성되는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도덕적인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에 따르면, 아동은 친구의 바람을 무시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사탕을 나눠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행동과 정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행동과 정서 관계에 대한 이해는 아동기부터 발달한다. 선행 연구들은 법률이나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행동들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를 검증해왔다. 예를 들어, 만 3세 이상의 아동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해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Smetana, 1995; Arsenio & Lover, 1995). 최근에는 법률이나 규칙 위반과 관련된 행동 이외에도 돕거나 양보하기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친사회적 행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동들이 이해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윤정은과 송현주(2007)는 약 만 3세의 아동들이 도움 행동을 한 행위자에게 긍정적인 특질 해석과 선호도를 보임을 검증해내었고, 원정애와 송현주

(2009)는 동일 연령의 아동이 양보행위에 대해서도 긍정 정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위와 같은 도덕적 행동과 정서 관계에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기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성을 논할 때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을 주장하였는데(Joachim & Rees, 1952),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먼저 언급된 예시에서 아동의 나눔 행동이 선생님의 강요라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지, 자발적 동기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 맥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정서와 도덕성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행위자의 바람(desire) 충족 여부 등과 같은 행위자의 내적 요소(intrinsic factor)가 도덕적 행동과 정서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왔다. 예를 들어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에서 만 4, 6세의 아동들은 먹고 싶은 사탕을 훔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의 정서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즉, 명확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희생 정도, 도움의 역량, 자발적 동기 여부 등과 같은 행위자의 내적 요소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실제 도덕적 판단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윤지영, 송현주, 2013; Eisenberg & Shell, 1986; Kahn, 1992; Spinrad et al., 2006).

반면, 일부 연구들은 도덕적 행동과 정서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의 외

적 요소(extrinsic factor)를 살펴보았다. 행위자의 의지만 있다면 바뀔 수 있는 내적요소와 달리, 외적요소는 이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특징이 있다(Rotter, 1966). 즉, 행위자가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외적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행위자의 인종 및 성별과 같은 외적 요인이 도움 행동과 정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Weller & Lagattuta, 2013; 2014).

본 연구에서는 Weller와 Lagattuta(2013)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도덕적 행동과 정서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외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찰자라는 외적 상황적 요소가 친사회적 행동의 결과로서의 정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려 했다.

사람들의 행동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변화한다(Clayton, 1978; Guerin, 1986; Bateson et al., 2006). 인간은 본디 사회적인 동물로 이들의 본성인 사회성은 인간이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프로그래밍 되어왔다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타자의 존재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 시킨다는 신경심리학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Somerville et al., 2013). 관찰자의 존재는 단어 외우기나 수학 문제 풀기와 같은 단순 과제에서 정답 행동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Zajonc, 1965; Guerin, 1986), 심지어 도덕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ley & Fassler, 2005; Sylwester & Rovers, 2010). 이러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은 만 4세부터 관찰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 행동

변화도 함께 확인된다(Haun & Tomasello, 2011).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타자의 존재가 도덕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논의하였지만 도덕적 행동으로 인한 정서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도덕적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정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찰자라는 외적 상황 요소가 도덕적(또는 비도덕적)행동 후의 정서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도덕성에 대한 관찰자 효과의 근본 기제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령전기 아동이 도덕적 판단과 정서 관계를 이해할 때, 관찰자라는 상황적 요소에 민감한지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한 동양권 문화에서 관찰자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Kim & Cohen, 2010; Seo et al., 2016), 한국 아동에게서 관찰자와 같은 상황적 요소는 발달 초기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식으로는 도덕 판단과 정서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원정애, 송현주, 2009; Lagattuta, 2005)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인공의 정서를 묻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아동에게 관찰자의 유무가 도움 행동과 정서 관계 이해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각 아동 참가자는 2(도움 행동 여부: 도와줌, 도와주지 않음) x 3(관찰자 유무: 없음, 엄마, 낯선 이)의 총 6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주인공의 감정과 도덕성을 추론해야 했다. 관찰자는 행위자와의 친숙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엄마’ 또는

‘낮선 사람’이 관찰자로 있는 조건을 대비시켰다.

아동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발달적 양상의 비교를 위한 자료의 기준을 확보하고 자극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검증된 자극을 사용하여 만 4, 5세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A대학교 학부생 성인 남녀 42명(평균연령 = 21.86세, 연령 범위 19-27세, 남 23명, 여 1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는 주인공의 친구(다른 인물)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1) 주인공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와 (2) 그 모습을 관찰자(없음/엄마/낮선 이)가 보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총 6가지 조건의 이야기가 각 1개씩 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성인 참가자의 경우 실험의도를 판단할 우려가 있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가짜(filler) 이야기 6개가 함께 제시되었다. 즉, 각 참가자는 6개의 검사시행 이야기와 6개의 가짜시행 이야기(총 12개)가 모두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한 것이다. 실험자의 가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은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참가자 간 각 조건 이야기의 도움의 유형(예: 신발 찾기, 물건 주워주기, 장난감 정리하기 등)과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하여 제시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 중 ‘도와줌 조건’과 ‘가짜’ 이야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도와줌, 관찰자 없음 조건

철수가 혼자서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승범이는 철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승범이는 철수에게 다가가 함께 장난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승범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승범이는 착한 아이인가요? 착하지 않은 아이인가요?

도와줌, 관찰자 있음(엄마) 조건

혜수가 혼자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너무 많아서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유리는 혜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유리는 혜수에게 다가가 함께 신발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유리의 엄마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유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유리는 착한 아이 일까요? 착하지 않은 아이 일까요?

도와줌, 관찰자 있음(낮선 이) 조건

다슬이가 혼자서 짐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동훈이는 다슬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동훈이는 다슬이에게 다가가 함께 짐을 드는 것을 도와주

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훈이가 도와주는 모습을 낯선 아주머니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동훈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동훈이는 착한 아이일까요? 착하지 않은 아이일까요?

가짜 이야기

종수가 친구들과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요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친구들과 일을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종수는 밥 짓기를 담당하였고,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볶음밥은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종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종수는 착한 아이일까요? 착하지 않은 아이일까요?

‘도와주지 않음 조건’ 이야기의 구성은 ‘도와줌 조건’과 친사회적 행동 여부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절차

실험에 참가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연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서를 한 참가자들만 개별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설문지에 제시된 각 조건의 이야기를 읽은 후, (1)주인공의 감정이 어떨지(좋은지, 나쁜지, 그저 그런지)에 대한 정서 추론과 (2)그 주인공이 어떤 아이인지(착한 아이인지, 착하지 않은 아이인지)에 대한 도덕성 추론 질문에 답하였다.

점수화

정서 추론 질문과 도덕성 추론 질문의 답은 따로 점수화되었다. 정서 추론에서는 주인공의 기분이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에 따라 각각 1점, 0점, -1점으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이때,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한 것을 의미한다. 도덕성 추론에서는 주인공이 ‘착한 아이인지’, ‘착하지 않은 아이’인지로 측정하였고, 각각 1점과 0점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이때, 1점에 가까울수록 주인공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결 과

가짜 시행을 제외한 6개의 검사 시행의 답변이 분석되었다.

예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이야기 순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_3 < 1.226, p > .321$. 따라서, 이후 보고된 분석에서는 성별과 순서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종속변인인 정서 및 도덕성 추론 자료는 2(도움 행동 여부: 도와줌, 도와주지 않음) x 3(관찰자 유무: 없음, 엄마, 낯선 이)의 2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분석되었다.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결과

성인들의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먼저, 도움행동의 주효과($F(1, 41) = 125.808, p < .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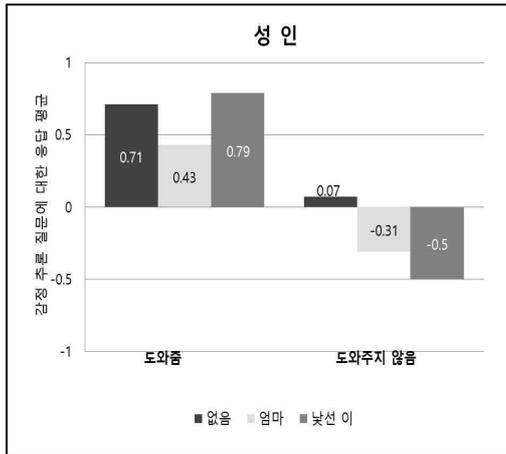


그림 1.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성인 응답 평균

이야기 주인공이 도움 행동을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감정($M = .643, SD = .529$)을, 돕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M = -.274, SD = .561$)을 추론함을 의미한다.

둘째, 관찰자의 주효과($F(2, 82) = 11.770, p < .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도움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찰자가 없을 때($M = .393, SD = .560$)보다 관찰자가 있을 때(엄마: $M = .060, SD = .647$; 낯선 이: $M = .143, SD = .838$),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도움 행동과 관찰자의 상호작용 효과($F(2, 82) = 16.013, p < .001$)도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 관찰자의 유무의 영향이 도와줌 조건과 도와주지 않음 조건에서 달랐음에 기인함이 드러났다. 최소 유의차 검증(LSD)을 통해 확인한 두 조건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도와줌 이야기 조건에서는 관찰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 82) = 8.581, p < .001$). 특히,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때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p < .007$. 반면, 관찰자가 있더라도 낯선 이인 경우에는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445$. 엄마와 낯선 이 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p < .001$.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도 역시 관찰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 82) = 17.973, p < .001$).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때 더 부정적인 감정을($p < .001$), 엄마보다는 낯선 이가 있을 때 더 부정적 감정을 보고하였다($p < .045$).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결과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분석 결과, 도움 행동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F(1, 41) = 480.870, p < .001$), 관찰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82) = .394, p = .675$).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인들의 도덕성 추론 판단에 있어 관찰자의 유무와 종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관찰자 유무와 무관하게 도움 행동을 했으면 착한 아이로, 돕지 않았으면 착하지 않은 아이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표 1.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성인 응답 평균

도와줌			도와주지 않음		
없음	엄마	낯선 이	없음	엄마	낯선 이
1.00	1.00	1.00	0.12	0.17	0.12

실험 1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은 도움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도덕성을, 돕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도덕성을 예측하였다. 둘째, 하지만 관찰자의 유무 역시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도와줌/도와주지 않음 조건 모두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엄마라는 관찰자가 있을 때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셋째, 이러한 관찰자 효과는 도움 행동의 조건에 따라 다소 달랐다. 도와줌, 도와주지 않음 조건 모두에서 엄마가 있을 때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를 느꼈지만, 낯선 관찰자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도와주지 않음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실험 2

연구대상

본 실험에는 만 4세 14명(평균 연령 = 52.8

개월, 연령 범위 48.1-57.9개월, 남 7명, 여 7명)과 만 5세 14명(평균 연령 = 65.7개월, 연령 범위 60.7-71.6개월, 남 7명, 여 7명), 총 28명이 참가하였다. 추가로 5명의 아동(4세: 1명, 5세: 4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나 실험 과제 및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실험상의 오류(기계 고장, 실험자의 절차 미준수)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가 아동은 서울 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육아카페 홍보글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는 실험 1의 검사 시행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다. 아동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와 상응하는 그림이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야기를 실험자가 직접 구두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된 자극은 그림 2와 같고, 실험 1의 이야기를 실험자가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바꾼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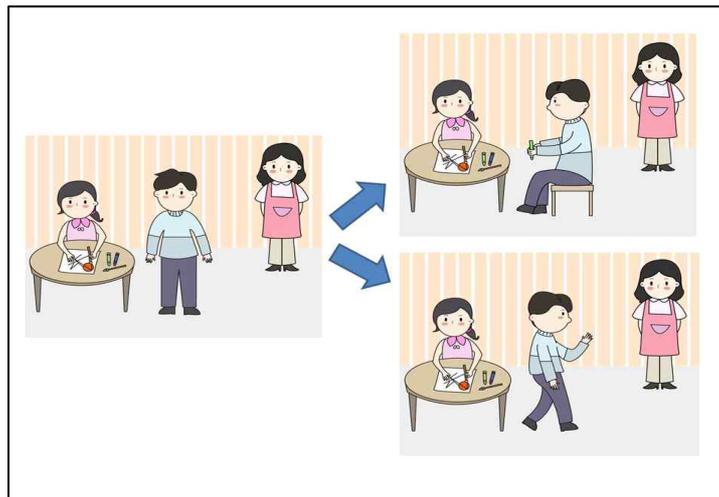


그림 2.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그림의 예

“이 친구는 민지야. 이 친구는 정훈이야. 여기에 정훈이 엄마도 계시네. 민지가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망치고 말았대. 그래서 정훈이는 민지를 도와주기로 했어. 정훈이는 민지에게 다가가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어. 그리고 이렇게 정훈이가 도와주는 모습을 정훈이 엄마께서 지켜보고 계셨어. 봐봐! 정훈이 엄마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네!

그러면 정훈이의 기분은 어땠을까?

정훈이는 착한 아이일까? 안 착한 아이일까?”

절차

본 실험은 서울시 소재 A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 시작 전, 아동은 실험 상황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놀이 시간을 약 15분 정도 가졌다.

실험 중 아동은 6가지 조건 이야기를 각각 한 개씩 들었다. 각 조건에 할당된 도움의 유형과 이야기의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 되었다.

컴퓨터 그림과 함께 실험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이야기가 끝날 때 마다 아동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였다. (1) 주인공의 기분은 어떨지(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에 대한 정서 추론 질문과 (2) 주인공은 어떤 아이인지(착하다, 나쁘다)에 대한 도덕성 추론 질문이었다. 특히, 정서 추론 시에는 세 가지 감정의 얼굴 표정이 그려진 그림 3 과 같은 판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해당 기분에 정확히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 실험자에 의해 설명되고 익숙해졌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점수화

감정 추론 질문과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은 따로 점수화 되었고,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F_s < 3.856, p_s > .06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성별과 연령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종류와 제시 순서는 각 아동마다 모두 다른 조합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인 통계 분석 방식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결과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분석 결과, 도움 행동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27) = 39.217, p < .001$). 아동은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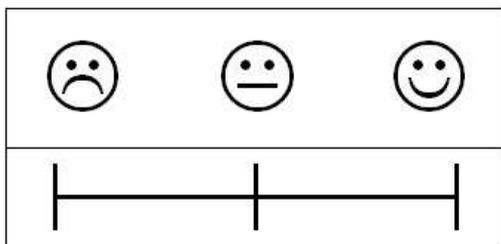


그림 3. 감정 추론에 사용된 smile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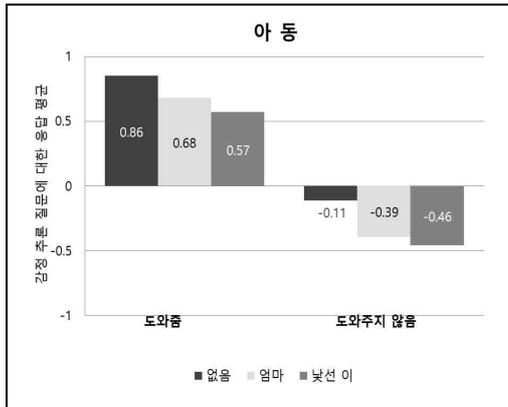


그림 4.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 평균

구를 도와준 행위를($M = .702, SD = .617$) 돕지 않은 행위($M = -.321, SD = .809$)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의 결과와 일치한다.

관찰자의 주효과도 보고되었고($F(2, 54) = 4.826, p < .013$), 이는 도움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찰자가 없을 때($M = .375, SD = .822$)보다 관찰자가 있을 때(엄마: $M = .143, SD = .883$; 낯선 이: $M = .054, SD = .923$),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음을 보여준다.

도움 행동과 관찰자 요인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F(2, 54) = .144, p = .866$). 아동 집단이 도와줌/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 간 관찰자 효과의 양상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사후분석 결과, 관찰자 효과는 도와주지 않음 조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2, 54) = 3.522, p < .038$), 도와줌 이야기 조건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54) = 1.800, p = .175$). 최소유의차(LSD) 검증 결과, 구체적인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와줌 이야기 조건에서는 관찰자가 없을 때 보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때($p = .232$), 엄마 보다는 낯선 이가 있을 때($p = .449$) 순서로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는 경향성만 확인 되었다.

반면,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는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때 더 부정적인 감정을($p < .031$)보고하였고, 엄마와 낯선 이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626$).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결과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움행동의 주효과는 유의미 하였지만($F(1, 27) = 384.494, p < .001$) 관찰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54) = 1.855, p = .166$).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관찰자의 유무와 종류에 무관하게 도움 행동을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도덕 판단을 한 반면, 돕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도덕 판단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험 1의 성인의 결과와 일치한다.

실험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만 4세 연령부터 도움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도덕성을, 돕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도덕성을

표 2.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 평균

도와줌			도와주지 않음		
없음	엄마	낯선 이	없음	엄마	낯선 이
1.00	1.00	1.00	0.14	0.07	0.07

예측하였다. 둘째, 관찰자의 유무가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관찰자가 존재할 때 관찰자가 없을 때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다고 아동들은 추론하였고, 이러한 관찰자 효과는 남을 도와주지 않는 덜 바람직한 행동을 한 상황에서 유의미하였다.

실험 1과의 비교

성인과 아동 간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실험 1과 2의 결과를 2(연령: 성인/아동) x 2(도움행동 여부: 도와줌/도와주지 않음) x 3(관찰자 유무: 없음/엄마/낮선 이) 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hree-way mixed model with repeated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 분석에서 연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F(1, 68) = .012, p = .914$), 연령, 친사회적행동 여부, 관찰자 요인 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F(2, 136) = 4.451, p < .014$). 삼원상호작용의 본질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와줌 조건에서 연령과 관찰자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36) = 4.242, p < .017$). 도와줌 조건에서 성인의 경우 관찰자 효과가 유의미했지만 ($F(2, 82) = 8.581, p < .001$), 아동의 경우 관찰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2, 54) = 1.800, p = .175$). 반면 도와주지 않음 조건에서 연령과 관찰자 여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2, 136) = .835, p > .436$).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반응 분석에서는 연령에 대한 주효과, 연령과 다른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_3 < 1.478, p > .233$).

요약하면 성인과 아동 집단은 대체로 관찰자에 대한 민감성의 발달 양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와줌 조건의 감정 추론 반응에서는 성인과 아동 집단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성인과 달리 아동들은 유의미한 관찰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 논의

기존 연구들은 학령 전기 아동들이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이 도덕적 규범이나 인습 혹은 친사회적 행동을 이해 할 때, 행위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검증해왔다(원정애, 송현주, 2009; 이현진, 2009; Astington & Gopnik, 1991; Lagattuta, 2005; Weller & Lagattuta,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적 요소로서 관찰자의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은 약 만 4세부터 관찰자가 있는 공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사적인 상황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Huan & Tomasello, 2011; Nettle et al., 2013). 이러한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 관계 이해 시 관찰자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성인과 만 4-5세 아동 집단 간 유사점

성인과 아동의 실험 결과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성인과 아동 모두 주인공이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를 돕

는 것을 긍정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박영신, 2001; 원정애, 송현주, 2009; Wellman et al., 2001; Lagattuta, 2005).

둘째, 두 집단은 모두 관찰자의 유무에 따라 행위자의 정서를 달리 추론하였다. 이들은 관찰자가 있을수록 행위자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으로 추론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가령, 성인과 아동은 모두 엄마 혹은 낯선 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은 것이, 관찰자가 없었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한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쁠 것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것보다 관찰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학령 전기부터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덕적 행동의 결과로서의 정서에 관찰자 유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추가적으로, 두 집단은 도덕성 추론 질문에서 유사점을 보였다. 이들은 관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도움 행동을 한 행위자를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도덕성 판단에는 관찰자의 유무와 같은 상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실험 1과 2의 결과 간 유사점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만 4-5세 아동들과 성인의 이해 간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 역시 도덕성과 관련된 행동의 결과로서의 행위자의 정서를 추론할 때, 관찰자 유무라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과 만 4-5세 아동 집단 간 차이점

본 연구에서 성인과 아동의 결과는 상당 부분 유사하였으나, 일부 세부 분석 결과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실험 1(성인 집단)에서는 관찰자의 효과가 도와줌/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 모두에서 발견되었지만, 실험 2(아동 집단)에서는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아동보다 관찰자라는 존재에 대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성인기는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가 비교적 뚜렷해지는 시기로, 이로 인해 타인의 시선의 효과가 아동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최상진, 김기범, 2000).

둘째, 행위자와 관찰자와의 관계 친밀도가 성인 집단에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인 집단은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 관찰자가 엄마일 때보다 낯선 이일 때 훨씬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즉,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관찰자 효과의 크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와줌 이야기 조건에서도 이러한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엄마와 낯선 이 조건 간 정서 차이가 확인했는데,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마저 달랐다. 엄마가 지켜본 경우에는 부정정서를, 낯선 이가 지켜본 경우에는 반대로 긍정정서를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아동 집단은 도와줌/도와주지 않음 조건 모두에서 관계 친밀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움 행동과 관찰자 변인의 상호작용이 성인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경우 도와줌 이야기 조건과 도와주지 않음 이야기 조건에서 관찰자 효과가 서로 질적

으로 달랐음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은 관찰자가 도와줌 상황에 있었는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정서를 서로 다르게 추론하였다. 즉, 같은 관찰자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동은 모든 관찰자가 있는 상황에 대해 긍정정서의 선행적 감소라는 동일한 패턴이 도와줌/도와주지 않음 조건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인과 아동 두 집단 간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로 성인과 아동이 인식하는 관찰자라는 존재의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추론한 바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 관찰자라는 존재를 행위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관찰자의 지위가 또래가 아닌 성인이었기 때문에 두드러진 결과일 수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관찰자라는 존재를 정서에 부정적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다양한 ‘보상’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에는 관찰자에 의해 공동체 화목, 지위의 상승, 자존감 증진 등을 경험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쉽게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한 행위자가 제 3자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을 본 이후 같은 행동이 증진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정용국, 신주정, 2010), 관련 경험이 많은 성인에게서 이러한 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질문들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찰자로 설정하였던 ‘엄마’라는 지위의 특수성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관찰자가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한 것이 행위자의 체면과 평판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행위자의 정서는 도움 조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의 차이는 ‘엄마’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따라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는 행위자인 아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이 피드백을 주는 주변 인물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를 행위자에 대한 평가자로 인식하고, 평가를 받는 행위자의 불안 등을 추론하여 부정적 감정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시선 단서만 제시하여 관찰자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거나 또래 아동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대상을 관찰자로 지정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타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과제 또한 아동에게 인지적 부담을 야기시켰을 수 있다. 가령, 행위자가 실제 직접 행동해보는 것과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것은 인지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Fujii et al., 2015; Vogt et al., 2015). 아동의 도와줌 조건에서 관찰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도 아동에게 타인의 감정에 대한 추론 과정이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켰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간접 추론 상황이 아닌, 1인칭 시점

의 직접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찰자 효과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서양의 문화권에 비해 체면에 대해 민감하다(Kim & Cohen, 2010). 특히 자신의 지위나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타인의 시선의 유무는 물론 대상의 수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eo et al., 2015). 따라서 한국 아동과 서양 문화권의 아동들에게서 관찰자 효과의 질적, 양적 유사성 및 차이점을 향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만 4,5세 아동들이 성인들과 유사하게 친사회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관찰자의 유무라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자 효과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첫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는 관찰자 존재가 인간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밝혀내었지만, 작동 기제와 같은 효과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행위자의 불편한 감정이 관찰자 효과의 본질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 기제가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도덕성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아동에게 도덕 교육을 할 때, 관찰자라는 요소가 효율적인지를 밝히는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벌금, 금기, 권위 등 외부 압력에 의한 ‘타율적

도덕 행동’ 보다,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자율적 도덕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덕행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양육 환경, 부모와의 애착 정도, 출생 순서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관찰자 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영신 (2001).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83-104.
- 원정애, 송현주 (2009).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57-71.
- 윤정은, 송현주 (2007). 아동의 행위자 성향 추론 능력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83-100.
- 윤지영, 송현주 (2013). 양보 행동 동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성인과 학령전기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77-291.
- 이현진 (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18.
- 정용국, 신주정 (2010). 텔레비전 만화영화의 친사회적 효과: 보상과 동일시가 친사회적 사고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6), 261-286.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

- 202.
-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ers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4), 915-927.
- Arsenio, W., & Lover, A. (1995).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omoral affect: Happy victimizers, mixed emotions, and other expectancies. Morality in everyday life: *Developmental perspectives, 87*-128.
-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Developing understanding of desire and intention. In A. Whiten(Ed.), *Natural theories of mind*. Oxford, U. K.: Blackwell.
- Bateson, M., Nettle, D., & Roberts, G. (2006). Cues of being watched enhance cooperation in a real-world setting. *Biology letters, 2*(3), 412-414.
- Caprara, G. V., Barbaranelli, C., Pastorelli, C., Cermak, I., & Rosza, S. (2001). Facing guilt: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need for reparation, and fear of punishment in leading to prosocial behaviour and agg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3), 219-237.
- Clayton, D. A. (1978). Socially facilitated behavior.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53*(4), 373-392.
- Eisenberg, N., & Shell, R. (1986). Prosocial moral judgment and behavior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o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4), 426-433.
- Eisenberg, N. (1992). *The caring chi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ud, S. (1915). Character-types in psychoanalytic work: III criminality from a sense of guilt. *Standard Edition XIV, The Hogarth Press*, London.
- Fujii, T., Takagishi, H., Koizumi, M., & Okada, H. (2015). The effect of direct and indirect monitoring on generosity among preschoolers. *Scientific reports, 5*, 9025
- Guerin, B. (1986). Mere presence effects in humans: A review.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1), 38-77.
- Haley, K. J., & Fessler, D. M. (2005). Nobody's watching?: Subtle cues affect generosity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6*(3), 245-256.
-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Basil Blackwell.
- Haun, B. D. & Tomasello, M. (2011). Conformity to Peer Pressur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6), 1759-1767.
- Joachim, H. H., & Rees, D. A. (1952).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 Kahn, P. H. (1992). Children's obligatory and discretionary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63*(2), 416-430.
- Kim, Y. H., & Cohen, D. (2010). Information, perspective, and judgments about the self in face and dignity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4), 537-550.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3-733.
- Nettle, D., Harper, Z., Kidson, A., Stone, R., Penton-Voak, I. S., & Bateson, M. (2013). The watching eyes effect in the Dictator

- Game: it's not how much you give, it's being seen to give something.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4(1), 35-40.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 Seo, M., Kim, Y. H., Tam, K. P., & Rozin, P. (2016). I Am Dumber When I Look Dumb in Front of Many (vs. Few) Others: A Cross-Cultural Difference in How Audience Size Affects Perceived Social Reputation and Self-Judg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8), 1019-1032.
- Smetana, J. G. (1995). Morality in context: Abstractions, ambiguities, and applications. *Annals of child development*, 10, 83-130.
- Somerville, L. H., Jones, R. M., Ruberry, E. J., Dyke, J. P., Glover, G., & Casey, B. J. (2013).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the emergence of self-conscious emotion in adolescence. *Psychological science*, 24(8), 1554-1562.
- Spinrad, T. L., Eisenberg, N., Cumberland, A., Fabes, R. A., Valiente, C., Shepard, S. A., & Guthrie, I. K. (2006). Relation of emotion-related regu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Emotion*, 6(3), 498.
- Sylwester, K., & Roberts, G. (2010). Cooperators benefit through reputation-based partner choice in economic games. *Biology letters*, 6(5), 659-662.
- Vogt, S., Efferson, C., Berger, J., & Fehr, E. (2015). Eye spots do not increase altruism in childre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6(3), 224-231.
- Weller, D., & Hansen Lagattuta, K. (2013). Helping the in group feels better: Children's judgments and emotion attributions in response to prosoci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84(1), 253-268.
- Weller, D., & Lagattuta, K. H. (2014). Children's judgments about prosocial decisions and emotions: Gender of the helper and recipient matters. *Child Development*, 85(5), 2011-2028.
- Wellman, H. M., Phillips, A. T., & Rodriguez, T. (2000).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perception, desire, and emotion. *Child development*, 71(4), 895-912.
- Williamson, G. M., & Clark, M. S. (1989). Providing help and desired relationship type as determinants of changes in moods and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22.
- Zajonc, R. B. (1965). *Social facilitation*. Ann Arbor: Research Center for Group Dynamic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1차원고접수 : 2017.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7. 08. 21.
최종게재결정 : 2017. 08. 31.

The development of Sensitivities to Observers whe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lping Behaviors and Emotions

Hyeon-Jeong Kim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presence of observers on Korean adult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elping behaviors and emotions. Korean adults and 4-to 5-year-old children were asked to infer a protagonist's emotion after listening to a series of stories. Each story varied on (1) whether or not an actor helped others and (2) whether or not someone observed the actor. Both adults and children inferred that the protagonist would be less happy when he or she did not help others in need and when he or she was observed by someone. The results demonstrate adults' and preschoolers' understanding that the presence of observers can influence emotional experiences after helpful or unhelpful behaviors.

Key words : *observer, helping behavior, moral development, moral emotions, pro-social behaviors*